

통신3사 “갤Z6 구매시,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유리”

‘갤럭시Z6’ 신형폰 사전개통

통신 3사, 선택약정 요금할인 저렴 알뜰폰, 단말기 개별구매 요금제 가입 통신사 카드 혜택·부가 서비스 활용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일제히 갤럭시 Z6 신형폰 사전개통에 나선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통신 3사를 이용한다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다소 유리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은 개별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공시지원금 8만원~24만원

통신 3사는 지난 19일부터 삼성전자 최신 폴더블폰(접이식 휴대폰) ‘갤럭시 Z폴드·플립6’의 사전개통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8일부터 진행된 사전판매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개통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제공되는 공시지원금(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사전판매 책정 금액과 같다.

5G 요금제 기준 SKT는 8만원(5G 콤팩트)에서 24만5000원(5GX 플래티넘), KT는 6만9000원(5G슬립 4)에서 24만원(5G 초이스 프리미엄), LG유플러스는 6만6000원(5G 미니)에서 23만원(5G 시그니처)로 책정됐다.

갤럭시 Z6 시리즈 가격은 갤럭시 Z 폴드6 256GB 모델은 222만9700원, 512GB와 1TB 모델 판매가는 각각 238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Z 폴드6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구남영 기자

만8100원, 270만4900원이다. 색상은 실버 웨도우, 핑크, 네이비 3가지로 출시됐다. 갤럭시 Z플립6는 256GB 모델은 148만5000원 512GB 모델은 164만3400원이다. 색상은 블루, 실버 웨도우, 옐로우로 구성됐다.

◆통신3사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유리할 듯

주목할 만한 점은 요금제별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통상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가장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통신 3사를 통해 148만 5000원인 플립6(256B)를 구매할 경우 통신비와 단말기 포함해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은 17만원 가량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의 12만5000원(5GX 플래티넘) 요금제를 선택하고 공시지원금을 받는다면 기기값은 120만3300원으로 낮아진다. 기기값과 통신

비를 합한 총비용은 420만3300원이다.

KT의 13만원(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적용한 기기값은 120만9000원 수준으로 총비용은 432만90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13만원(5G 시그니처) 요금제를 사용하고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기기값은 122만5000원이다. 총 43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3사의 요금제가 2년 약정인 점을 고려하면, 24개월을 분할 납부할 시 통신비 제외 매달 5만원 가량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내야 한다는 셈이다. 반면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면 총납부할 금액은 더 저렴해진다. 통신3사를 통해 갤럭시 Z6시리즈를 구입한다면 공시지원금보다 높은 25%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T의 13만원 요금제로 플립6(256B)를 구매할 경우 24개월 분할 납부했을 때 매월 내야 하는 단말기 할부원금은 6만1875원이다. 하지만 선택약정을 적용하면 25% 할인이 적용돼 3만 2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총 납부

금액은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50만4000원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장 저렴해 월 10만원 대

통신3사를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본인이 단말기를 구입해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플립6(256GB)를 할인가인 139만원 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를 구매해 24개월 분할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5만8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알뜰폰 업체 KT엠모바일의 5G 최고가요금제(월 4만7001원)을 가입하면 월 납부해야 할 총 통신비는 10만 5000원 수준이다. 통신 3사에 비해 약 7만원 가량이 저렴한 셈이다.

한편, 통신 3사는 신제품 관련 카드 혜택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제휴카드인 현대카드 ‘M3 라이트’로 제품을 할부 구매하고, 전월 실적 50만원을 넘기면 2년간 최대 72만원을 할인한다. ‘T 안심보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최대 152만원을 할인해준다.

KT는 KT닷컴에서 회원 포인트로 최대 5만원까지 기기 값을 할인해준다. 또한 삼성·BC카드 사용 고객 대상으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아울러 ‘KT 365 폰케어 플드·플립6’에 가입하면 과소·분실과 36개월 뒤 스마트폰 교환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교체해 자녀에게 기기를 물려주는 ‘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T

‘Y 워터페스티벌’ 진행

KT가 야구 관람과 물놀이를 함께 즐기는 응원 이벤트 ‘Y 워터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7월 고객 감사 문화 이벤트 ‘초대드림’에 응모한 고객 640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KT는 내달 장기 혜택 개편을 통해 매월 새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 ‘초대드림’을 정규화할 계획이다. 8월의 초대드림 이벤트는 ‘보야지 투자리움’ 뮤직 페스티벌로, 조만간 KT닷컴을 통해 참여 응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밀리의서재

상반기 독서 트렌드 선봬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에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전자책과 오디오북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이 읽힌 것으로 조사됐다.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서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독서 트렌드’를 21일 발표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전자책 카테고리에서 내 서재에 담은 수 20만 건을 돌파했고, 오디오북 카테고리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전자책 카테고리에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이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와 ‘세이노의 가르침’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오디오북 분야에서는 ‘세이노의 가르침’과 ‘불편한 편의점’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또 올해 상반기 인기 도서 상위 100위에서는 소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문과 자기계발 도서가 뒤를 이었다.

/이혜민 기자

제주항공

2024 하반기 공개채용

제주항공이 대규모 공채에 나선다. 제주항공이 2024년 하반기 신입과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부문은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인사, 구매, 영업, 호텔, 지점 운송 등이다. 근무지는 서울, 인천 등 직무별로 근무지가 상이하다.

제주항공 2024년도 하반기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는 오는 7월3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일정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LG전자, 세탁기·전조기 등 ‘가전 구독’… 유니콘 사업 우뚝

지난해 구독 매출 1조1341억 기록 “가전 구매고객 10명 중 3명 구독 신청”

다양한 유료 구독 모델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가전제품도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선택하고 있다. 앞서 잠정간 LG전자의 호조에 삼성전자도 가전 구독 시장에 뛰어들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LG전자는 2022년 가전 구독 시장을 개척한 지 2년 만에 조 규모의 ‘유니콘 사업’으로 성장했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



LG가전의 가전 구독 서비스 소개 화면. /LG전자

매출은 1조 1341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동기보다 성장세가 더욱 빨라져 연말에는 연간 최대 구독 매출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업계 안팎에선 올해 LG전자가 가전 구독만으로 매출 1조 원 중반대를 넘어 2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미 올해 1분기 가전 구독 사업에서 전년 동기(2010억 원)보다 72% 증가한 매출 3456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 10명 중 3명 이상이 구독 방식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전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에 대해 “고물가 시대에 최신 기기를 선뜻 구매하기 힘든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구매 이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서비스를 받거나 무상수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달부터 호텔, 병원, 식당 등에 ‘클로이 서브봇’을 배치하는 ‘로봇 구독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밝히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 향후 가전 구독을 해외 시장까지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가전제품 구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예정이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늦어도 10월까지 가전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 에버랜드에 갤럭시폰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가 에버랜드 판다월드 마스코트 ‘바오패밀리(라바오, 아이바오,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콘셉트로 한 갤럭시 Z 폴드6·플립6 체험존 ‘바오패밀리는 플립을 사랑해(BAO FAMILY LOVES FLIP)’를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에버랜드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바오패밀리 구성원 다섯의 생일이 모두 이달에 모여있는 것과

삼성전자 신제품이 공개된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체험존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체험 공간은 에버랜드 정문 주변 ‘글로벌페어’ 야외 광장과 맞은편 실내 체험관에 대규모로 조성됐다. 야외 광장에는 최대 7m 높이의 바오패밀리 조형물로 구성된 포토존이 꾸며졌다.

조형물은 갤럭시 Z 플립6와 바오패밀리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됐다.

/구남영 기자

네이버, 포인트 쌓는 ‘오늘도 즐찾’ 이벤트

네이버가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홈피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오늘도 즐찾 네이버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버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오늘도 즐찾 네이버앱 홈피드편’을 진행한다.

사용자가 홈피드를 아래로 스크롤하며 콘텐츠를 살펴보다 홈피드에 나타나는 이벤트 스티커를 터치하면 자동

으로 랜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스티커가 노출되는 위치는 매일 지정 변경된다.

네이버는 매일, 스티커를 터치한 로그인 사용자 선착순 20만 명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최대 1만원을 랜덤으로 지급한다. 또 2주간 동안 매일 이벤트 참여를 완료한 사용자 1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혜민 기자